

품행장애 성향의 청소년을 위한 도덕성 향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최 빛 내[†]

김 남 재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품행장애 성향 청소년의 도덕성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D보호관찰소, S대안 학교에서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실험집단 9명, 비교집단 10명, 통제집단 10명, 서울 H중학교, B중학교에서 중학교 1, 2학년으로 실험집단 10명, 비교집단 9명, 통제집단 11명을 선정하였다. 실험집단(도덕성 향상 프로그램)과 비교집단(미술 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주2회 총 8회기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통제집단(아무런 처치도 가하지 않음)은 다른 두 집단과 같은 시기에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했다. 실험집단에 실시한 도덕성 향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Wilson의 도덕성 구성요소를 이론적 배경으로 개발한 것으로, 도덕적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도덕성진단검사(남궁달화, 2004)”와 “반사회적행동척도(김준호, 1990)”를 세 집단에게 실시하여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도덕성 향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품행장애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증가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도덕성 향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다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모두 품행장애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반사회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임상적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 품행장애, 도덕성, 반사회적 행동, 집단 상담 프로그램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빛내,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32-714)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19
Tel : 02) 901-8000, E-mail : bitnae@naver.com

현재 품행장애는 자주 보고되는 아동·청소년기 행동장애로서 성인기에 범죄행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이다. 이러한 청소년기 비행은 그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령대는 낮아지고 질적인 면에서 더 난폭해 지고 있으며, 집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로는 학교 폭력, 왕따, 성폭력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매스컴을 통해서 빈번하게 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품행장애 청소년 중 일부는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행동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 되므로 인해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같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행동이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다. 품행장애 아동이 나타내는 거부적, 공격적 특성은 생의 초기에 시작되어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이어져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일부는 나이가 들에 따라 줄어들기도 한다. 해외 한 연구에 따르면, 반사회적 행동 특성은 학령기 초에 시작되고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절반이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지며, 청소년 비행은 1/2-3/4가 성인범죄로 이어지고 있다(Blumstein, Cohen & Farrington, 198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 비행청소년의 11.7%가 이미 아동기에 실제 형법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김태련, 이경숙, 1992). 그렇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는 청소년의 비행까지 포함한다면 청소년기의 범법행위의 수는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품행장애 청소년중의 50%이상은 성인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품행장애 청소년의 이러한 문제행동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기준(CAPA, 1994)에 의하면 만 15세 이전에

발생한 품행장애 증거가 있어야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진단 내려진다. 따라서 품행장애 청소년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 본 연구자는 품행장애 청소년을 치료하기 위하여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 주목하였다.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차이를 비교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품행장애 청소년들이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귀인에서 일반청소년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경희, 이희정, 2001; 전덕임, 양익홍, 1998; Cohen & Strayer, 1996; Ellis, 1982). 도덕적 정서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생기는 도덕적 행동 속에서 가지게 되는 정서로서 도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이유와 관련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사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행동의 동기를 찾게 하는 중요한 내적 감독 체제로서 그 행동이 즐겁고 유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또는 그 행동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품행장애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도덕적 정서가 부족하고 도덕적 정서 귀인에 있어서 원인보다는 결과에 의해 추론하고 있다(Nunner-Winkler & Sodian, 1988). 또한 도덕적 추론 과정에서 같은 도덕적 발달이 지연되어 있고 도덕적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덜 느낀다(Aresenio & Fleiss, 1996; Aresenio, Sacks, & Shea, 1999; Cohen, 1996).

또 다른 연구에서 일반 청소년과 품행장애 청소년의 공감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비교한 결과,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공감 수준이 낮았다(Cohen, 1996). 이렇게 공감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품행장애 청소년들이 정서적 상황에 관여할 때 자기중심

적 고통을 더 많이 느끼며, 자기에 초점을 둔 정서는 타인의 정서와 요구에 대한 공감과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 타인의 요구에 의한 인지적 과정에서 타인의 정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요구를 채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한 낮은 공감적 정서와 자신의 입장에 대한 높은 정서적 고통을 느끼는 인지적 결과를 얻게 된다.

그 밖의 연구에서도 도덕적 위반 상황에서 품행장애 청소년의 정서적 반응을 추론해 본 결과 가해자 입장에서 죄책감 보다는 기쁨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Aresenio, 1999). 이러한 점을 볼 때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앞의 다른 연구와 일치하는 도덕적 정서 반응에 대한 귀인이 물리적 이득에 초점을 두었을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품행장애 청소년들이 물리적 이득에 초점을 두고 타인의 정서에 무관심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환경적 측면에서는 가족과 또래 집단에서의 학대나 집단적 괴롭힘과 관련되어 있으며 (Richters & Cichetti, 1993), 사회적 측면에서는 부모의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태도와 잘못된 양육 습관, 부모의 갈등이 아동기에 성장해야 할 양심이 발달하는데 있어 영향을 준 것이다 (Kaplan & Johnson, 1986).

품행장애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도덕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품행장애 청소년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위해 도덕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특별히 도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품행장애 성향의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반사회적 행동들을 감소시켜,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고 준법

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도덕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도덕성에 대한 이론들 중에 Wilson의 도덕성 구성요소를 선택하였다. 사실상 기존 연구들에서는 Kolberg의 인지발달 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 Wilson의 도덕성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이유는 도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많은 교수 방법 및 측정 도구들이 표준화되었고 기존의 권위적인 도덕교육에 반해 절차 위주의 교육을 설명하였다는 점이다(김창미, 2004). 윌슨은 도덕을 합리적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절차위주로 구성된 윌슨의 도덕성 구성요소가 도덕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Wilson이 정의하는 도덕성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도덕적 사태에서 도덕적 문제를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과 절차를 의미하는 '사고의 형식'의 도덕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방식을 의미하는 '삶의 형식'의 도덕이다. '사고의 형식'의 도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과 관련된 도덕, 즉 대인간 도덕 영역과 관련된 도덕이며, '삶의 형식'의 도덕은 자아이상, 개인적 관계 등의 사적 도덕 영역과 관련된 도덕이라 할 수 있다.

Wilson이 제시하는 도덕성요소는 요소별로 분리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사과의 전 과정 걸쳐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요소들은 개념적으로 누적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가 제시하는 15개의 도덕성요소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제 4범주로 나뉘고 총 15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범주는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고려하기(PHIL)'

로 ① 사람의 개념을 알기(PHIL-HC), ② 사람의 개념을 도덕 원리로 주장하기(PHIL-CC), ③ 사람의 개념을 사람 지향적 차원에서 도덕원리로 지지하는 정서 감정 가지기(PHIL-RSF-PO), ④ 사람의 개념을 의무 지향적 차원에서 도덕원리로 지지하는 정서 감정 가지기(PHIL-RSF-DO)가 해당한다. 제 2범주는 ‘사람들의 정서 감정을 인식하기(EMP)’로 ⑤ 정서의 개념을 알기(EMP-HC), ⑥ 나의 정서 감정을 인지하기(EMP-1), ⑦ 타인의 정서 감정을 이해하기(EMP-2)가 해당한다. 제 3범주에는 ‘염연한 사실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GIG)’로 ⑧ 염연한 사실에 관해 알기(GIG-1-KF), ⑨ 염연한 사실의 정보원에 관해 알기(GIG-1-KS), ⑩ 언어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GIG-2-VC), ⑪ 비언어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GIG-2-NVC)가 해당한다. 제 4범주에는 ‘도덕적 문제를 인식, 사고, 판단하여 행동하기(KRAT)’로 ⑫ 도덕적 문제인가를 타당하게 인식하기(KRAT-1-RA), ⑬ 도덕적 문제에 대해 철저히 사고하기(KRAT-1-TT), ⑭ 도덕적 문제를 정당하게 결정하기(KRAT-1-OPU), ⑮ 도덕적 문제를 판단대로 행동하기(KRAT-2)가 해당한다.

각 회기마다 위에 제시된 Wilson의 15개 도덕성 구성요소를 교육적인 방법과 함께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Wilson의 도덕성 구성 요소의 점수를 알아볼 수 있는 도덕성 진단 검사와 반사회적 행동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품행장애 청소년에서 도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Wilson의 도덕성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도덕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확인 작업을 통해

품행장애 성향의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된다면 이들을 위한 도덕성 향상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도덕성 향상 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성향의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효과가 있는지, 어떤 하위유형의 도덕성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지, 반사회성은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고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서울시내 중, 고등학교, 소년원, 소년보호시설, 대안학교, 보호관찰소 등에 메일과 전화로 프로그램 관련 공문을 보낸 후 회신한 서울00 보호관찰소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00 사대부속 중학교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실시하였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개의 집단을 구성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3개의 집단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구성은 서울00 보호관찰소에서 실험집단 10명, 비교집단 10명이 구성되었으며 실험집단에 속한 한명은 3회기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탈락하여 실험집단은 9명이었다. 실험집단의 평균 연령은 17.6세, 비교집단의 평균 연령은 17.5세였으며, 사전 검사를 통해 대칭화 분배하여 그룹을 나누었다. 참가 대상자들이 보호

관찰소에 오게 된 죄명은 방화, 성폭력, 무면허운전, 절도, 강도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품행장애 진단기준에 해당되는 과거력이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과거력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담당자,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서울 대안학교(고)의 품행장애 성향 학생들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30여명의 학생들 중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 점수의 수준이 비슷한 아이들로 10명을 선정하였다. 통제 집단의 평균 연령은 17.8세였다.

두 번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구성은 서울 ○○사대부속 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관찰로 선별된 품행문제가 있는 학생들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각각 10명씩 구성하였다. 비교집단의 학생 1명은 사전 검사 후 학교 징계로 인해 탈락되어 비교집단은 9명이었다. 실험집단의 평균연령은 14.7세, 비교집단의 평균연령은 14.6세였다. 아무런 처치가 없는 통제집단으로는 ○○중학교의 품행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 5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이중에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의 점수와 비슷한 11명을 선정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통제집단의 평균 연령은 14.8세였다. 중학생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현재 재학생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다. 품행장애 및 비행성에 대해서 엄연한 성차를 보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은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3개의 집단은 모두 같은 시기에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시간의 차이에 대한 내적타당도 위험요인을 최소화 하였다.

도덕성 향상 집단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Wilson의 도덕성 요소를 기

초로 하여 남궁달화가 연구한 도덕 교육과 수행평가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8회기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한회기에 한 가지 도덕적 구성요소를 익히는 것으로 하였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두 명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집단 상담으로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받았다.

프로그램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세션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초, 중, 후반 회기에 맞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Wilson의 도덕성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남궁달화(2000)의 『도덕교육과 수행평가』의 문제들을 회기별로 구성하였다. 또한 남궁달화(2003)의 『도덕성요소와 도덕교육』의 구성요소의 상황들 중에서 적절한 상황들을 회기에 나누어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내용은 <부록 I>에 제시되었다.

비교 집단에게 실시한 집단 프로그램(미술치료)

실험집단과 동일한 조건에서 개발한 도덕성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처치를 가했을 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비교집단에게 미술치료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최혜경(2000)이 품행장애,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증상을 보이는 도벽 아동을 대상으로 24회기에 걸쳐 실시한 미술치료에서 적용한 활동내용 8가지를 선정하여 8회기로 재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부록 II>에 제시되었다.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도덕성 향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주 2회 총 8회기로 구성된 단기 프로그램으로, 각 회기는 총 90분 동안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은

주 치료자인 연구자 1인과 보조치료자인 임상 심리 대학원생 2명에 의해 운영 되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이 진행되었기에, 최대한 매뉴얼에 입각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도구

도덕성 진단 검사

이것은 Wilson의 4범주 15개의 도덕성 구성요소를 기초로 하여 남궁달화(2004)가 개발한 것으로 내용타당도는 전문가들(25명)이 각 범주의 하위 목표와 내용에 따라 각 문항이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92.96% 의견의 일치율을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에서는 내적 합치도(N=475)가 .83으로, 각 범주별로 .36, .62, .69, .72수준의 신뢰도 지수를 나타낸다. 도덕성 진단 검사는 총 55개의 문항으로 각 범주별로 12개, 11개, 20개, 1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제 1범주는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고려하기(PHIL)', 제 2범주는 '사람들의 정서 감정을 인식하기(EMP)'로, 제 3범주에는 '염연한 사실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GIG)', 제 4범주에는 '도덕적 문제를 인식, 사고, 판단하여 행동하기(KRAT)'이다.

반사회적 행동척도

이 연구에서는 반사회성이란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의 비행이라 할 수 있는 행동과 이외 음주, 흡연, 싸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25개의 반사회적 행동에 관해 질문하였다. 이는 김준호(1990)가 개발하고 한영옥(1999)이 수정하여 '반사회적 행동 척도'로 명칭한 것이다. 각 항목을 제시한 후 그 항목에 대해서 최근

한 달 이내에 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등간 척도의 수준에서 측정하고자 반응을 '없다', '한두 번 있다', '서너 번 있다', '대여섯 번 있다', '많다'로 구분하여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주었다. 각 항목의 점수가 합산되어 총점이 얻어져 최저점 25점에서 최고점 125까지 나올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경험이 많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1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실험연구를 통해 수집한 두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SPSS 12.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각 척도의 점수 및 하위 유형에 대해서 단일 집단의 사전과 사후를 비교하는 대응 t검정(t-test)을 하였다. 집단 3개에 대한 도덕성 점수, 반사회적 행동점수 및 도덕성의 하위 유형에 대해서 각각 F 검정의 일원분산 분석을 적용하여 사전검사에 대한 동질성을 증명하고 사후 검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도덕성과 반사회성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세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결과는 표 1의 사전검사 결과와 같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모두 합한 실험집단, 비교집단 그리고 통제집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표 1. 세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 비교

	1.실험집단 (n=19)	2.비교집단 (n=19)	3.통제집단 (n=21)	F	Duncan
	M(SD)	M(SD)	M(SD)		
사전검사					
도덕성	55.7(11.6)	56.4(11.0)	54.6(9.6)	.144	1=2=3
반사회성	85.6(10.7)	87.6(10.3)	88.2(10.3)	.317	1=2=3
사후검사					
도덕성	66.5(8.2)	57.7(16.0)	55.8(9.6)	4.66*	1>2=3
반사회성	53.3(12.7)	67.1(16.7)	87.0(20.0)	27.23***	1<2<3

* $p < .05$ ** $p < .01$ *** $p < .001$

56)=.144, $p=.866$, $F(2, 56)=.317$, $p=.729$. 도덕성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성향의 청소년들의 도덕성과 반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도덕성과 반사회성 평균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1의 사후검사 결과와 같다. 프로그램 실시 이후 도덕성에서는 실험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56)=4.655$, $p=.013$. 반사회성에서는 세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2, 56)=27.23$, $p<.001$,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 집단 순으로 반사회성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

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도덕성 점수의 향상을 보이고 있어 도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반사회성이 상당한 감소를 보이고 있어 프로그램 실시 이후 청소년들의 행동에 변화를 알 수 있다.

세 집단 내에서 보이는 사전-사후 검사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실험집단은 도덕성과 반사회성 점수에서 유의한 차

표 2. 집단 내 사전-사후 도덕성 및 반사회성 평균 비교

	1. 실험집단 (n=19)		t1	2. 비교집단 (n=19)		t2	3. 통제집단 (n=21)		t3
	사전 M(SD)	사후 M(SD)		사전 M(SD)	사후 M(SD)		사전 M(SD)	사후 M(SD)	
	도덕성	55.7(11.7)	66.5(8.2)	6.44***	56.4(11.0)	57.7(16.1)	.43	54.6(9.6)	55.8(9.6)
반사회성	85.6(10.7)	53.3(12.8)	-10.19***	87.6(10.4)	67.1(16.8)	-6.77***	88.2(10.3)	87.0(13.8)	-4.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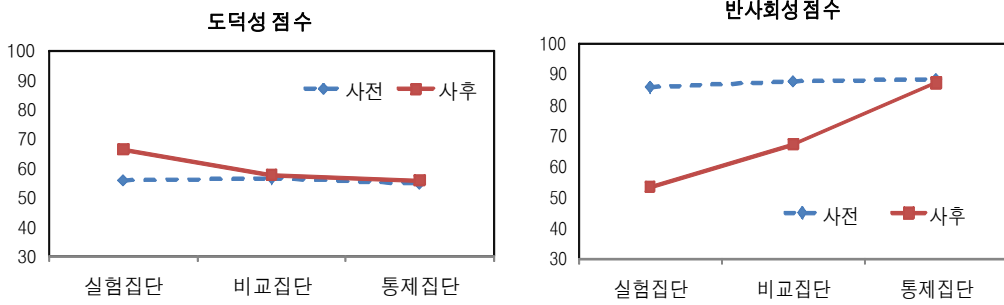


그림 1. 세 집단의 도덕성 및 반사회성 점수의 사전-사후 비교

이를 보였고, $t_{18}=6.44, p<.001, t_{18}=-10.19, p<.001$, 비교집단은 반사회성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_{18}=-6.77, p<.001$.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도덕성과 반사회성 모두 사전-사후 검사 점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도덕성의 하위 유형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비교

각 집단 내에서의 하위유형의 사전-사후 검사에 대한 점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에서 범주1, 범주3, 범주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_{18}=-3.174, p<.01, t_{18}=-5.404, p<.001, t_{18}=-4.896, p<.001$. 이는 사람들의 정서 감정을 인식하는 2범주가 도덕성 다른 범주에 비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서와 감정은 주관적인 부분이면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범주에서 객관적으로 다루어 도덕성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제 2범주에 포함된 “정서의 개념을 알기(EMP-HC)”, “나의 정서 감정을 인지하기(EMP-1)”, “타인의

표 3. 전체 집단의 사후 검사 하위유형의 평균 비교

변인	집단	M(SD)	F	Duncan
범주1	실험	13.57 (3.43)	.28	1=2=3
	비교	13.26 (4.95)		
	통제	12.57 (4.47)		
범주2	실험	10.78 (4.27)	.69	1=2=3
	비교	9.57 (4.50)		
	통제	9.33 (3.18)		
범주3	실험	14.36 (2.58)	5.33**	1>2=3
	비교	11.57 (3.35)		
	통제	12.09 (2.44)		
범주4	실험	17.89 (4.49)	8.01***	1>2=3
	비교	13.36 (6.39)		
	통제	11.80 (5.51)		

* $p<.05$ ** $p<.01$ *** $p<.001$

정서 감정을 이해하기(EMP-2)”는 모두 인지적인 영역에 포함 되는 것으로 정서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적용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으리라 보인다. 비교집단과 통제집단에서는 사전-사후의 하위유형 점수에서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도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제

시한 집단만 하위 유형에 대한 변화가 뚜렷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두 집단에서는 하위 유형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으로 도덕성은 교육 및 지도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범주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범주 3과 범주 4에서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56)=5.224, p<.01$, $F(2, 56)=8.008, p<.001$. 범주 3과 4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도덕성의 범주 중에서 3범주의 “염연한 사실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GIG)”와 4범주의 “도덕적 문제를 인식, 사고, 판단하여 행동하기(KRAT)”에서 실험집단이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많은 향상 보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객관적인 정보제공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부분은 잘 받아들여졌다고 보여지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도덕적 문제 인가를 타진해 보는 것을 통해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즉흥적인 행동과 사고 패턴이 조

금 완화 되었으리라 보여 진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사전-사후 검사 비교

본 연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결과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학생 집단은 실험집단이 도덕성과 반사회성의 평균에서 사전-사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_9=4.410, p<.01$, $t_9=-6.879, p<.001$. 또한 비교집단에서는 반사회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t_8=-6.355, p<.001$, 통제집단에서도 반사회성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_{10}=3.076, p<.05$.

고등학생의 경우 실험집단은 도덕성과 반사회성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_8=5.432, p<.01$, $t_8=-9.624, p<.001$. 비교집단에서는 반사회성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t_9=-3.843, p<.01$. 통제집단은 도덕성과 반사회성 모두 사전-사후 검사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비교집단의 경우 보호 관찰소에서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에 여

표 4.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각 집단 내에서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1. 실험집단(n=10)		2. 비교집단(n=9)		3. 통제집단(n=11)		t_1	t_2	t_3
	사전 M(SD)	사후 M(SD)	사전 M(SD)	사후 M(SD)	사전 M(SD)	사후 M(SD)			
중학생									
도덕성	59.3(11.6)	67.1(9.6)	60.7(7.4)	60.1(11.0)	55.8(8.0)	56.4(7.5)	4.41**	.15	1.64
반사회성	78.3(8.9)	52.7(11.0)	80.2(10.0)	54.8(10.2)	82.3(10.8)	86.8(11.9)	-6.88***	-6.36***	3.08*
고등학생									
도덕성	51.8(11.0)	66.0(6.8)	52.6(12.6)	55.7(20.0)	53.3(11.4)	55.1(11.9)	5.43**	.61	1.37
반사회성	93.9(5.1)	54.0(15.1)	94.3(4.7)	78.1(13.7)	94.7(4.4)	87.2(16.3)	-9.62***	-3.84**	-1.59

t_1 =실험집단의 사후-사전검사 비교, t_2 =비교집단의 사후-사전검사 비교, t_3 =통제집단의 사후-사전검사 비교

* $p<.05$ ** $p<.01$ *** $p<.001$

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반사회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학생의 경우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서도 반사회성 점수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반사회성이 감소된 것이 아닌 사후 검사에서 더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품행의 문제가 있는 중학생 연령의 학생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두게 되면 반사회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도덕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품행장애 성향 청소년의 도덕성을 향상시켜 비행을 감소시키고, 준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8회기의 도덕성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품행장애 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임상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성향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성향의 청소년의 도덕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집단의 도덕성 점수의 사전-사후를 비교하였을 때 실험집단에 유의한 점수의 차이를 보였으나, 비교집단과 통제집단에서는 도덕성 점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도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대한 인지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정서적인 접촉이나 행동에 대한 개선만을 목적으로 쉽게 향상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의 다른 도덕성 향상 프로그램과의 차

이들을 비교해 보면, Wilson의 도덕성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학습자료를 제작한 연구(김범식, 2004)에서는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또 다른 연구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사회 학습적 관점과 정신분석적 관점을 따라 습관형성 및 모방을 강조한 프로그램(이현우, 1988), 여러 가지 이론을 접목하여 도덕상을 다룬 프로그램(이원영, 1992), 그리고 가설적 갈등상황의 토의 프로그램(김정준, 1993)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통합적 활동계획안에 의해 제시되어 있어 교사의 자질에 따른 프로그램 질의 변화가 큰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구조화된 집단 상담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도덕성 향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도덕성의 하위 유형에서 범주 3(염연한 사실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 GIG)과 범주 4(도덕적 문제를 인식, 사고, 판단하여 행동하기, KRAT)에서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세 집단 간 사후 검사에 대한 차이를 F 검정하였을 때 범주 1(PHIL)과 범주 2(EMP)는 세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나 범주 3(GIG)과 범주 4(KRAT)에서는 실험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3범주의 염연한 사실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GIG)와 범주 4의 도덕적 문제를 인식, 사고, 판단하여 행동하기(KRAT)가 도덕성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품행장애 성향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네 개의 범주 중에서 범주 3과 범주 4가 프로그램 회기의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후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청소년들이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 보다는 사실적인 내용에 대한 도덕적 인식이 사후 검사의 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성향의 청소년의 반사회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에서 보면 비교집단인 다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받은 경우에도 반사회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품행장애 성향의 청소년의 반사회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를 통한 청소년 품행문제에 대한 접근의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보호 관찰소, 소년원, 대안학교, 일반 중·고등학교 등에 체계적으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명은(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호관찰의 문제점으로 보호관찰 분류를 위한 기준을 너무 간소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하며 대상자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지지 못한다. 우리나라 분류 기준을 보면 재범 가능성과 보호감독에 잘 적응하는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특징들을 충분히 반영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범죄의 형태 뿐 아니라 개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호 관찰을 받게 된 대상자들은 자신의 보호관찰 기간에 따라 해야 하는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친의 한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년 보호 관찰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 1:1멘토링 사업, 복학설명회, 청소년 연극 체험 캠프, 대상자/ 직원 문화 체험, 현지 상담 프로그램,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프로그램, 청소년 성폭력 사범 프로그램, 성년의 날 행사, 도예, 산업체 등 현장학습 프로그램, 학교 폭력 예방 교실,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청소년 사이 코드라마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1회기만 실시된다. 여러 회기에 걸쳐 실시해야 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실시가 어려운 이유는 품행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한 자리에 꾸준히 모이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서이다. 여러 회기에 걸쳐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지만 청소년의 품행의 문제를 감소시키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기때문에 집단 상담 프로그램 실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학생 통제집단과 중학생 통제집단 간에 반사회성 점수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고등학생 통제집단은 시간 차이를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 반사회성이 감소된 반면 중학생 통제집단의 경우는 반사회성이 오히려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고등학생 집단의 반사회성 점수를 비교해 보면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 순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성인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내적타당도 위협요인 중에 성숙에 해당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 될 뿐 아니라 사물과 이치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적응 측면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최진미(2004)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남정우(2008)연구에서 고등학교 1, 2, 3학년의 품행장애 성향이 학년이 올라 갈수록 감소한다는 것과 일치한다.

반면 중학생 통제 집단에서 특이하고 주목할 점은 반사회성 점수가 상당한 수준의 유의한 상승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에 비해 매스컴에 영향을 더 많이 받

으며 주변 환경에 의해 심리적, 정서적 측면이 불안정하게 흔들린다는 이지혜(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별히 품행장애 성향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반사회성이 강화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친구들의 관심과 호응, 인기)등을 받게 되면 잘못된 것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과도기에 있는 중학생 시기의 청소년들이 어른 취급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으며 타인을 괴롭게 하는 특성이 있다는 김성태(197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부와의 갈등이 심해지며(정치관, 2003), 청소년 시기 어느 시점까지 정체감 발달 곡선이 하강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정체감이 혼미한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중학생의 경우 반사회성을 증가할 수 있다(서봉연, 1979). 또한 Gottfried(1985)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적 강화 동기 보다는 외적 강화 동기에 의해 학업성취수준이 높아진다고 보고 하였다. 이는 중학생 집단에게는 외적 강화 동기들로 인해 반응하게 되어 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고등학생 집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순정(2002)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유해 환경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비행관련 친구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렇게 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중학생 품행장애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아무런 치료와 처치가 없으면 반사회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은 중학생에게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입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 점은 추수 검사를 통해서 연구대상자들의 도덕성점수와 반사회성 점수

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연구 대상의 특성상 품행에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으로, 방학이 시작 된 이후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 추수 검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차례 추수검사를 위한 소집을 하였으나 고등학생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1명도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학생의 경우는 2-3명 정도만 약속을 지켰다. 또 다른 제한점으로는 품행장애 성향의 청소년을 감별하기 위해 품행장애 진단기준을 직접사용하지 않고, 각 기관의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보고에 의해 대상을 선별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품행장애 진단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지만 품행장애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품행장애 청소년’이 아닌 ‘품행장애 성향의 청소년’으로 명칭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Wilson의 도덕성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 본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품행장애 성향의 도덕성을 향상 시켜 주는데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도덕성을 키워주는 이러한 도덕관련 프로그램이 교육학 뿐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준비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덕성이 향상이 품행장애 치료에 효과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도덕성 향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 뿐 아니라 미술치료도 품행장애의 반사회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교육기관 내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별히 품행에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집단 상담 참여가 필수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안 학교, 일반 중·고등학교 내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질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청소년관련 국가 공기관과 프로그램 개발팀의 협조와 연구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실시와 접목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 이희정 (2001).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16-22.
- 김범식 (2004). 도덕성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 윌슨의 도덕성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수 (1995). 신문교재화 중심의 가치탐구 활동을 통한 민주시민 자질 함양. *도덕 국민 윤리교육분과 연구보고서*.
- 김성태 (1970). 발달심리학. 서울: 범무사.
- 김용일 (2005). 도덕성진단검사도덕성 평가를 위한 문항 제작에 관한 연구: John Wilson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준 (1993). 가설적 갈등상황의 유아의 도덕적 추론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준호 (1990).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태련, 이경숙 (1992). 반사회적(Antisocial Behavior) 아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3(1), 14-25.
- 김창미 (2004). 윌슨의 도덕교육론에 비추어 본 도덕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영 (2005). 미술치료가 품행장애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궁달화 (2000). *도덕교육과 수행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남궁달화 (2003). *도덕성 요소와 도덕교육*. 서울: 학지사.
- 남궁달화 (2004). *새 도덕교육학 개론*. 한국교원대학교 학교출판부.
- 남정우 (2008). 일반학교 품행장애 위험학생에 대한 특수 교육적 지원 가능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봉연 (1979). *성격과適應*. 서울: 益文社.
- 이명은 (2008). 각국의 보호관찰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개선방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 (2002). 윌슨의 도덕성 요소에 기초한 도덕과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도덕교육학연구*, 제3집, 197-214.
- 이우신 (1982). 결손가정과 일반가정 중학생의 성격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시 중학생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1992).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 어린이 육영회*.
- 이지혜 (2001).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성 역할 특성과 성 고정관념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우 (1988). 도덕 추리와 도덕 판단과의 관계에 미치는 여섯 가지 관련변인.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신애 (1996). 문제 상황 신문교재화 토의학습이 도덕적 실천의지 함양에 미치는 영향. *도덕·국민윤리교육 분과 연구보고서*.
- 장순정 (2002).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적응 유연성 및 비행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덕임, 양익홍 (1998). 청소년기 품행장애와 우울을 동반한 품행장애의 다면적 인성검사 반응양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273-284.
- 정우식, 정소은, 김희자 (2000). 선진각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현황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 정치관 (2003). 중학생의 심리적 갈등 양상과 대처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주연 (1999). 신문을 활용한 중학생의 도덕성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진미 (2004).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과학적 소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혜경 (2000). 품행장애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증상을 가진 도벽 아동에 대한 단일미술치료 사례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영옥 (1999). 품행장애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관한 연구: 반사회적 행동과 우울 성향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영호 (2006).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현황 및 발전방안-수강명령을 중심으로. *보호 통권* 18호, 126-16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esenio, W. F., & Fleiss, K. (1996). Typical and behaviorally disruptive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motional consequences of socio-moral event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73-186.
- Aresenio, W, F. Sacks, B. & Shea, T. (1999). *Juvenile offenders' and comparison adolescents' conceptions of the emotional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 Relations with attachment and empathy*.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Blumstein, Cohen, Farrington (1987). Characterizing Criminal Careers. *Science* . 985-991.
- Cohen, D, & Strayer, J. (1996). Empathy in conduct-disordered and comparison youth. *Development Psychology*, 32, 988-998.
- Ellis, P. L. (1982). Empathy: A factor in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1), 123-134.
- Gottfried, A. E. (1985). Academic intrinsic motivation in you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523-538.
- Hoffman, M. L. (1975). Development synthesis of affect and cognition and its implication for altruistic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07-622.
- Kaplan, H. B., Johnson, R. J. (1986). *Self-rejection and explanation of deviance*, Refinement and elaboration of d latent structure.
- Nunner-Winkler, G., & Sodian, B.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 emotions. *Child Development*, 59, 323-338.
- Richters, J. E., & Cicchetti, D. (1993). Mark Twain meets DSM-III-R: Conduct disorder, development, and the concept of harmful dysfunc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29.

원고접수일 : 2010. 10. 24.
수정원고접수일 : 2010. 12. 08.
최종게재결정일 : 2010. 12. 23.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Moral Improv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onduct Disorder Tendency in Adolescence: Focused on Wilson's moral components

Bit-Nae Choi

Nam-Jae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velop group consulting programs that increase the morality for juveniles with conduct disorder and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in reducing immorality of juveniles with conduct disorder. In order to verify those issues, 9 students for an experimental group, 10 students for a comparative group, and 10 students for a control group were selected in the 1st and 2nd grades at D probation office and S alternative school in Seoul and 10 students for an experimental group, 9 students for a comparative group, and 11 students for a control group were selected in the 1st and 2nd grades at H middle school and B middle school. The total of 8 session programs were conduct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 program for increasing morality) and the comparative group (other group consulting programs) twice a week. A post-test was conducted to the control group (no measures applied) after conducting a pre-test at the same time duration. A pre and post-tests for three groups were conducted with "morality measurement test" developed by Nam Gung-dal-hwa (2004) and "behavior scale for antisociality" revised by Kim Jun-ho (1990) and one way anova and paired t-test were us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sults. The results of examining hypothesis are as followings: The group consulting programs for improving morality had an effect in increasing the morality for juveniles with conduct disorder. Both the group consulting programs for improving morality and other group consulting programs had effects in reducing antisociality of juveniles with conduct disorder. Lastly, the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further study were suggested.

Key words : Conduct Disorder, Moral, Antisociality, Group Counseling Program

부 록

〈부록1〉 도덕성 향상 프로그램 회기 내용

회기	상 담 목 표	활 동 내 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원들의 친밀감 형성 * 자기 개방 * 규칙에 대한 이해 * 자기를 이해하기 *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고려하기(PHIL) 	session1> - 집단 소개 및 집단 구성원 소개 - 집단 규칙 정하기 session2> -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고려하기”에 대한 설명 - 이에 따른 수행과제 제시 및 실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의식의 강화 * 훈련동기 고양 *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배양 *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고려하기(PHIL) 	session1> - 스트레스상황에 대한 경험 및 대처방법 나누기 - 적절한 대처방법 익히기 session2> -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고려하기”에 대한 설명 - 이에 따른 수행과제 제시 및 실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장적, 소극적, 공격적 행동의 변별 * 상황에 따른 적절한 감정표현과 행동을 습득 * 사람들의 정서 감정을 인식하기(EMP) 	session1> - 주장적, 소극적, 공격적 행동의 개념 설명, 행동특징, 감정, 결과에서의 상호 비교 및 변별 연습 session2> - “사람들의 정서 감정을 인식하기”에 대한 설명 - 이에 따른 수행과제 제시 및 실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여 자신의 문제를 객관 화.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의 탐색 * 사람들의 정서 감정을 인식하기(EMP) 	session1> - 나를 화나게 했던 상황에 대한 분석 - 역할극을 통한 상황 재연 및 상황의 재구성 session2> - “사람들의 정서 감정을 인식하기”에 대한 설명 - 이에 따른 수행과제 제시 및 실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의 결과예측. * 책임 있게 행동하는 능력향상. * 염연한 사실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GIG) 	session1> -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와 어울리는 것은? session2> - “염연한 사실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에 대한 설명 - 이에 따른 수행과제 제시 및 실시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탄생을 체험 * 새로운 인간관 재정립의 기회 * 염연한 사실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GIG) 	session1> - 미래의 나의 모습 그려보기 session2> - “염연한 사실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에 대한 설명 - 이에 따른 수행과제 제시 및 실시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확립. *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인관계 대처능력의 향상. * 도덕적 문제를 인식, 사고, 판단하여 행동하기(KRAT) 	session1> - 자신의 강점 찾기 - 긍정적인 자기진술과 부정적인 자기진술 session2> - “도덕적 문제를 인식, 사고, 판단하여 행동하기”에 대한 설명 - 이에 따른 수행과제 제시 및 실시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을 이해. *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인생목표 설정. * 도덕적 문제를 인식, 사고, 판단하여 행동하기(KRAT) 	session1> - 다른 사람이 본 나의 모습, 나의 인생 설계, 소감문 쓰기 session2> - “도덕적 문제를 인식, 사고, 판단하여 행동하기”에 대한 설명 - 이에 따른 수행과제 제시 및 실시

〈부록 2〉 비교집단에게 실시 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	활동내용	목적	방법
1	명함 만들기	자기표현. 나에 대한 인식 가지기	명함카드를 나누어 주고 자유롭게 자신의 명함을 만들어 본다.
2	가족화 그리기	가족지각. 가족 관계에 대한 이해. 자신감 향상.	종이와 연필로 먼저 자신의 가족이 무언가 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본 후 함께 이야기 하고, 다시 그 위에 색깔을 덧 입혀 본다.
3	학교생활화	학교생활의 이해증진. 대인관계 향상. 소속감 인식	학교에서의 생활을 그림으로 그려 본 후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 본다.
4	화산 그리기	분노감정 표현의 방법에 대한 이해. 적절한 방법 찾기.	화산을 그려본다. 화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 준 후에 본적은 없지만 화산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며 그려본다.
5	플라쥬	감정의 표출과 거부감 감소. 감정 전달 기능향상	잡지에서 주제에 맞는 그림을 오려서 붙이면서 자신을 표현하게 된다. 나의 이상형에 대한 주제로 하게 될 것이다.
6	소조활동	정서안정. 스트레스 해소. 대상관계 개선	지점토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만들고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7	미래의 내 모습	자아개념 증진활동. 내재되어 있는 자신을 표출하고 통찰함.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 하면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8	땡큐카드만들기	감사한 마음 가지기. 감정 표현하면서 정서적 지지 받기.	고마운 사람이나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카드를 만들고 글을 써본다.